

# 19년전 만큼 절실한가... 고객 안중에 없는 '은행파업'

KB국민은행, 이달말 2차 총파업 예고  
노조 "문제는 차별·산별교섭 불이행"  
은행장 "페이밴드, 최소한의 조치"

"우리나라 은행 한 곳이 문 닫으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이 더 똑똑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파업하는 은행과 직원이 경험할 겁니다. 실제로 S은행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른 은행 여·수신창구가 부족한 정도였어요."(A은행 전 은행장)

KB국민은행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옛 주택은행과의 합병을 반대하던 2000년 이후 19년만의 파업이다. 이번 국민은행 파업이 19년 전 만큼 절실한 것일까.

19년 만의 KB국민은행 총파업이 진행된 8일. 각 지점은 큰 혼란이 없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노조는 8일 하루 경고성 파업에 이어 이달 말까지 2차 총파업을 이미 예고했다.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1분기 내내 파업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 중 당초 가장 크게 부각됐

구분	투쟁계획
1차 총파업	1월8일
2차 총파업	1월30~2월1일
집단휴가	실 연휴 집단휴가
3차 총파업	2월26~28일
집단휴가	3월4일
4차 총파업	3월21~22일
5차 총파업	3월27~29일
현장투쟁	정시출근, 회의참가거부, 계열사 상품매 거부 등 태업전술(2, 3월)



KB국민은행 노조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던 성과급 300%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됐다. 사측이 앞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시기 조정과 페이밴드(직급별 호봉상한제) 등에 대해서도 노조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선포식이 열린 서울 송파구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야제 전에 이뤄진 집교섭에서 사측이 성과급 관련 수정 제안을 했고 저희도 수용해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핵심 쟁점 1, 2 순위는 신입 행원의 기본급 상한제와 'L0' 여성직원 근무경력 인정"이라고 말

했다.

노조 측은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측이 차별과 산별교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지만 결국 페이밴드나 무기계약직의 근무경력 인정, 임금피크제 연장 모두 노조원들이 받아가는 돈과 관련한 문제다. 성과급 처럼 1회성이 아닌 연봉 자체가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사안이다.

페이밴드는 일정 기간 안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기본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2014년 11월 이후 임행한 직원부터 적용하고 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페이밴드가 직원

의 급여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페이밴드 확대를 제안했던 이유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소홀한 업무태도로 동료 직원의 근무의욕까지 꺾고 있는 일부 극소수의 분들을 염두에 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득했다.

사측이 당초 확대 방침을 접고 현행 유지·추후 논의하자고 했지만 노조측은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역시 노사 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노조는 금융노조의 산별협상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를 만 56세로 1년 늦추자고 제안한

상태다.

허행장은 "부점장과 팀원·팀장급 직원의 임금피크 도입 시기 불일치로 일어나는 조직 내의 갈등은 우려할 수준"이라며 "임금피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은 고령화 시대와 곧 다가올 정년연장에 대비하는 등 KB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KB국민은행 파업에 대비해 위기상황대응반을 운영하고, 고객 불편 상황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파업으로 인해 고객들의 금융거래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은행의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은행의 신뢰와 평판이 훼손될 것"이라며 "여타의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은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국민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금융거래와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은행의 파업은 국가적 손실도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특히 국민은행은 고객수나 자산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 은행이므로 그만큼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삼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北 노동신문에 실린 김정은 방중 기사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1면 톱으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올해 첫 중국 방문 차 열차로 평양을 출발하기에 앞서 위장대 사열을 받는 사진을 기사와 함께 게재했다. 이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입성하기 앞서 중국 중앙TV(CCTV)와 함께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1면 톱으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올해 첫 중국 방문 차 열차로 평양을 출발하기에 앞서 위장대 사열을 받는 사진을 기사와 함께 게재했다. 이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입성하기 앞서 중국 중앙TV(CCTV)와 함께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보도했다.

## 경상수지 50.6억 弗... 81개월 연속 흑자

흑자규모는 7개월 만에 최소

경상수지가 81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지만 흑자규모는 7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단가와 세계 교역량이 둔화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8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50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3월 이후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다만 흑자규모는 지난해 4월(17억7000만달러) 이후 최소치다.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든 것은 수출 등 상품수지가 크게 둔화되면서다. 상품수지는 79억70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114억6000만달러)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하며 지난해 2월(59억3000만달러) 이후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은 517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주력품목 단가 둔화와 세계 교역량 둔화, 높은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입은 9.3% 증가한 468억3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원유도입단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서비스수지는 22억9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전월(22억2000만달러 적자)에 비해서는 소폭 적자가 늘었지만 작년 동월(32억70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그동안 서비스수지 적자를 확대시켰던 여행수지가 개선되면서다. /김희주 기자 hj89@

## 공시價 ↑·재조환 부담... 서울 재건축 난항

서울 아파트값 1년새 14% 상승에 부담금 '눈덩이'... 사업 지연 전망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사면초가다. 지난해 집값 급등과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재건축 조합은 공시가격 인상 이후로 사업 추진 시기를 미루는 등 재조환 부담금 방어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지난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조환)의 영향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재조환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초과이익)이 3000만원이 넘으면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다.

국토부가 지난해 1월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토대로 강남 4구의 재건축 부담금을 추산한 결과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통보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은 1억3500만원(반포현대)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서울 집값이 크게 치솟아 올해 재건축 단지들의 재조환

부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9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서울 25개 구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평균 14% 이상, 강남은 17.8%로 집계됐다. 재조환 부담금 공포가 엄습한 이유다.

실상가상으로 올해 4월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마저 오른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가격에서 개시 시점 가격, 평균 집값 상승액 등을 빼고 남은 이익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재건축 개시 시점은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인가를 받은 날, 종료 시점은 재건축 준공 인가를 받은 날이다. 이 때문에 올해 이전에 추진위가 설립된 재건축 사업장은 올해 공시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금이 더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업계·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개발 부담금은 중후부동산 가격에서 중전부동산 가격을 뺀 차액이 많을수록 많이 내고 적을수록 적게 내는 구조"라며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매매차익(개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이연시킬 가능성이 높

다"고 말했다.

재건축 시장에 악재가 겹친 가운데, 조합들은 일단 사업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난해 재조환 부담금 여파로 시공사 선정을 보류한 대치쌍용1차 재건축 조합은 인근 대치쌍용2차 추가분담금 규모를 고려해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치쌍용2차도 지난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이후 후속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개포 주공 5~7단지, 송파 가락 상아아파트 등도 추진위 구성 자체를 미뤘다. 반포주공1단지3주구는 지난 7일 시공비용 등의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 계약을 취소해 시간을 벌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 여파로 재건축 사업이 미뤄지면서 서울 아파트 수급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권대중 교수는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미루면서 부담금 나오는 사례를 보고 움직이려고 눈치보기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미뤄지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LG전자도 4분기 이익 급감

글로벌 시장 침체... 영업이익 753억  
| 연간기준 영업이익 2.7조... 10% 성장

LG전자가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753억원으로 8일 잠정 발표했다. 전년 동기(3668억원)보다 무려 79.5%나 급감한 성적이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89.9%나 쪼그라들었다. 최소 1500억원 수준이었던 시장전망치보다도 절반 이상 적다. 매출액도 15조7705억원으로 전년보다 7%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시장 침체가 꼽힌다. 경기악화에 따른 수요 감소가 일어난 데다가, 브라질 등 신흥 시장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판매가 감소한 것. G7 씽큐 등 소형 스마트폰 출시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4분기 글로벌 IT 시장 침체에 따라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일 판매량이 줄었을 것"이라며 "신흥시장을 비롯한 가전 판매량도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단, 연간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 매출액 61조3399억원, 영업이익 2조7029억원이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2년 연속 60조원을 돌파, 영업이익도 9.5%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재용 기자 juk@